

나눔의 가치를 발견하는 공간 기증관 둘러보기

-손기정이 기증한 그리스 투구-

이원진, 209호 기증 I 실 18:00~18:30

기증관 기증 I 실에서는 대표 전시품으로 손기정 선생이 기증한 그리스 투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그림 1). 손기정(孫基禎, 1912~2002) 선생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세계적인 마라톤 선수입니다. 손기정 선수의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은 국내 신문에서 사진 속 선수복의 일장기를 지워버린 사건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기정 선생은 어떻게 그리스 청동 투구를 가지게 되고 기증하게 된 것일까요?

기원전 6세기 무렵 그리스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코린토스 양식’의 이 청동 투구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의 우승자에게 주는 부상이었습니다(그림 2). 따라서 당시 우승자인 손기정 선수가 받아야 했으나,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아마추어 선수에게 메달 이외에 어떠한 선물이나 기념품도 공식적으로 줄 수 없다’는 규정을 내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손기정 선수도 투구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투구는 독일에 남았고 베를린 샤를로텐부르크박물관에 50년 간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손기정 선생은 우연히 투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나 그 보관처를 알 수 없었는데, 1976년 재독 교포인 노수웅 씨의 노력으로 투구의 소재를 알게 된 손기정 선생은 투구를 되찾고자 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 1986년 베를린 올림픽 개최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투구가 손기정 선생에게 헌정되었고, 이듬해 정부는 50년 만에 돌아온 투구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여 ‘보물’로 지정했습니다.

손기정 선생이 투구를 되돌려받는 과정에서 마음속 깊이 품었던 것은 많은 국민이 투구를 볼 수 있도록 국가에 기증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투구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것’이라는 생각을 한순간도 놓지 않았던 손기정 선생은 1987년 투구를 독립기념관에 위탁했다가 1994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그림 1. 전시 전경



그림 2. <청동 투구>, 그리스, 기원전 6세기, 산수11349, 보물



제753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11월 29일)

조선시대 청화백자 감상

강경남, 305호 분청사기·백자실 18:00~18:30

우리는 각종 미술품이 주는 시각적 즐거움을 즐긴다. 미술품에는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현대미술품의 경우 예술가와 관객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직관적 감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술품 제작 시기가 현 시점과 물리적으로 멀어질수록 관람객의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자기의 경우, 의도를 갖고 제작된 공예품이기 때문에 맥락을 잘 살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도자기 감상법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도가 공예의 본질에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자. ○ 제작자의 의도를 생각하자. ○ 제작과정을 알아보자. ○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나만의 컬렉션”을 만들어 보자.

도자기 제작 경향을 기준으로 조선시대를 시기 구분한다면, 후기는 1752년부터 사옹원 분원의 경영권이 민간에게 넘어가는 1883년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분기점이 되는 사건은 이전 시대 왕실 및 관청용 백자를 제작했던 경기도 광주 금사리에 있던 분원分院이 남종면 분원리로 이전한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조달이었습니니다. 당시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왜냐하면 근대기 이전 공예품은 당대를 반영한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 등 몇 차례 큰 전쟁을 겪으면서 파괴되고 훼손되었던 여러 산업기반 시설들과 제도 등이 18세기 중기에 회복을 꾀하며 조선은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됩니다. 변화된 시대는 청화백자 생산 확대를 요구했지만 당시 국가정책 기조는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고 ‘숭검지덕崇儉之德’을 지향했기 때문에 화기畫器와 갑기甲器 제작을 엄금하였습니다. 이 시기 청화백자는 청화 안료로 그려진 그림에서 민화적인 요소와 공예적인 장식무늬의 확대, 중국·일본 도자의 영향까지, 곳곳에 당시의 시대 상황과 국제 교류의 흔적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753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11월 29일)

금령총, 어린 영혼의 안식처

류정환, 108호 신라실 19:00~19:30

금령총은 1924년 발굴조사된 돌무지덧널무덤[積石木槨墳]입니다. 확인된 껌문거리[副葬品] 가운데 금방울이 있어, 무덤 명칭을 금령총이라 했습니다. 경주 노동동에 있는 봉황대 고분의 남쪽에 위치합니다.

조사 당시, 무덤 주변에 여러 채의 민가가 있었습니다. 봉분은 상당히 파괴된 상태였고, 남북 길이 13m, 높이 약 3m의 반달형만 남았습니다. 원래 크기는 바닥 지름 약 18m, 높이 약 4.5m로 추정됩니다. 구조는 전형적인 돌무지덧널무덤의 특징을 지녔습니다. 직경 9m 정도의 돌무지가 있었는데, 그 표면은 점토로 덮여 있었습니다. 돌무지 안에는 길이 4.8m, 너비 2.5m, 높이 1.5m의 나무덧널을 설치하고, 그 안에 나무널을 안치했습니다. 나무덧널은 동서 방향으로 길게 만들어졌으며, 죽은 이는 동쪽에 머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나무널 동쪽 편에는 길이 1.8m, 너비 0.8m 정도의 껌문거리 공간이 있습니다. 금속제 그릇과 유리그릇, 철기, 말갖춤, 토기 등이 집중적으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껌문거리 중에서 매우 희귀한 금방울 외에 말 탄 사람 토기 1쌍과 배모양 토기 등 상형토기가 여럿 확인된 점도 특이합니다. 나무널 앞에 모셔진 죽은 이는 금관金冠과 금허리띠[金製腰帶]를 화려하게 두르고 있어서, 신라 왕실에 속한 일원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장신구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어린 왕족으로 여겨집니다. 이 무덤은 어린 나이에 요절한 어린 영혼의 안식처로 조성되었던 듯합니다.



그림1. 금령총 발굴 전 모습



그림 2. 말 탄 사람 토기 출토



제753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11월 29일)

경천사 십층석탑의 보존·복원과 관리

조연태, 역사의 길(경천사 십층석탑 앞) 19:00~19:30

1918년 11월 15일 우리나라로 반환된 경천사 십층석탑은 경복궁 회랑으로 옮겨져 1919년 6월 11일 국립박물관에 귀속되었지만 그 당시 복원 기술력으로는 훼손된 부재를 수리하여 조립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40여 년 가까이 제 모습을 찾지 못했습니다.

본격적인 수리는 1959년 국립박물관 학예관 임천(1908~1965)선생의 주도하에 파손으로 결실된 부분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복원하였고, 중앙의 적심부분도 잡석과 콘크리트 모르타르를 혼합하여 채워 넣었습니다.

1960년 수리 복원을 마친 경천사 십층석탑은 경복궁 전통공예관 앞에 세워졌습니다. 그 당시 3층 난간석 남측 사리공에 지름 18cm의 얇은 동근 동판의 재건기를 안치하였고, 1962년 12월 20일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경천사 십층석탑은 시멘트 모르타르가 점차 풍화되고 부재 탈락이 빈번하였으며 대기오염에 노출되면서 정밀 보존처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1994년 11월 24일 문화재위원회(건조물분과)의 해체 복원 결정 이후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도 보존처리하여 1995년 4월 20일 석탑 해체 시작으로 2005년 3월 2일 보존처리가 완료된 145점의 탑 부재를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2005년 3월 28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이 조립 복원하여 면진대 위에 세웠으며, 2005년 8월 9일 경천사 십층석탑 복원 완공 기념 행사를 갖고 새로운 모습으로 일반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일반에게 공개된 이후 매년 상태 점검과 함께 2016년부터 현재까지 레이저를 이용한 비접촉식 거리 측정기로 두 방향의 움직임을 측정하고 있었으나 기기의 해상도와 측정방식의 한계로 인해 정확한 움직임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2023년 11월 6일, 접촉식 경사계 센서를 활용한 정밀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석탑의 미세한 움직임을 측정하고 이를 분석하여 석탑의 안정적인 보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